

인구 1,000명당 신생아 고작 9명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5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출생아(1만5천715명)가 사망자(1만6천206명)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증가(-491명)가 이미 감소세로 반전됐다.

전문가들은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국고 보조 차등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지속=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1.08명,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상 최저였던 2004년 1.16명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일본의 1.25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일본 1.29명, 미국 2.05명, 프랑스 1.90명, 영

통계청, 2005년 출생·사망 통계

하루 1,200명 출생 673명 사망 저출산·고령화 지속 남아선호 경향 개선...전남 자연증가-491명 전국 최저

국 1.74명, 스웨덴 1.75명 등이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역시 9.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일이 점점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총 출생아 수는 43만8천62명, 사망자수는 24만5천511명으로 자연증가 인구(출생자-사망자)는 19만2천551명에 불과, 처음으로 20만명대 밑으로 추락했다. 이는 5년전인 2000년(38만9천4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0대 남성 사망률 여성의 2.9배=연령대별 여성 사망률에 대한 남성 사망률의 비율은

50대가 2.85배로 가장 높고 40대 2.67배, 60대 2.55배, 30대 1.95배, 70대 1.85배, 20대 1.62배 등 순이다. 전체 사망자중 65세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66.4%로 10년전보다 10.9%포인트 높아졌다.

출산모 평균 연령 30.2세=지난해 출산모의 평균연령은 30.2세로 전년보다 0.1세가 높아졌다. 이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출산모 연령대별 구성비는 30대초반이 40.9%로 20대후반(40.2%)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정상 성비 접근=혼외 출산비율 상승=남아선호 경향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07.7명으로 전년보다 0.5명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성비(103~107명)에 더욱 가까워졌다. 10년전에는 113.2명이었

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외의 출생아수의 비율은 1.5%로 전년

3%보다 높아졌다. 시도별 출생·사망율=전남의 조(粗)사망율(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조(粗)출생율(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은 8.0명으로 부산(7.0명) 다음으로 가장 낮아 급격한 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했다.

반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제주가 1.30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1.28명, 충남 1.26명 등의 순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전남도 신임국장 프로필

원만한 성품 조직 내 융화 중시

배용태 행정혁신국장



원만한 성품과 무난한 일처리로 조직 내 융화를 중시한다. 구 내무부(행자부)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냈고 1년여 기업도시기획단장을 맡아 중앙부처 인맥도 넓은 편이다. 기획력과 현장행정 경험을 겸비했다. ▲영암(51) ▲행시 27회 ▲목포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치밀한 기획력 강력한 추진력

김양수 공무원교육원장



치밀한 기획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인다. 1년 6개월여 지사 비서실장을 지내 박준영 지사의 '측근'으로 불린다.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도의회의 출퇴근 보좌변경을 건의한 일 때문에 행정혁신국장을 단임으로 마쳤다. ▲무안(56) ▲기획관 ▲무안부군수 ▲비서실장

기획력 풍부 전략사업 적극

강진원 기업도시기획단장



전혀적인 의욕과 끈기, 꼼꼼한 성격에다 기획력도 풍부해 민선 4기 전략사업인 기업도시 조성업무 총괄에 적극이라는 평. 이미지가 다소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흠이다. 업무 특성상 보다 적극성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강진(47) ▲행시 31회 ▲법무담당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기획·재정통... 중앙경험 풍부

이점관 정책기획관



7급 공채 직후 구 내무부(행자부)에서 기획과 재정업무를 맡아 기획관으로 낙점됐다. 전남의 전략 사업인 기업도시 조성, 인프라 확충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여건이 급변해 감각적으로 기획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보성(52) ▲해남부군수 ▲공보관

문제해결·갈등해소 능력 출중

김동화 건설재난관리국장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고 친화력 또한 뛰어나 늘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제해결 능력 및 갈등해소 능력도 출중해 주변의 호평을 받는다. 대규모 토목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57) ▲나주시 산업건설국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도청 남악 이전 무리없이 마쳐

윤영기 광양만경제구역청 행정본부장



신중한 업무처리로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 도청이전본부장을 맡아 남악신도청 이전을 무리없이 마쳤다. 전남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 남악신도시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의 기반마련에 기여했다는 평. ▲광주(58) ▲지역계획과장 ▲도청이전사업본부장

태 탈북자 18명 한국 도착

나머지 159명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심의

태국 이민국에서 억류 중인 탈북자 18명이 24일 밤(이하 현지시각)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지난 22일 태국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 175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가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과 이전에 태국 이민국에 억류돼 있다가 출국 수속을 밟아온 또 다른 탈북자 2명 등 모두 18명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

UNHCR의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은 이미 이날 오전 이민국에서 풀려나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난민센터에 체류하고 있다. 나머지 2명 역시 조만간 풀려나 방콕 외곽 톤프링 국제공항에서 합류한 뒤 밤 10시 30분발 아시아나항공 OZ 742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된다.

이에 앞서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 159명은 이날 불법입국죄로 법정에 회부돼 각각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왕 톨통시스를 태국 이민국 국장

은 "연행 탈북자 175명 가운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법정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UNHCR은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 175명 전원을 난민지위에 준하는 '고려대상자'(PoC: Persons of Concern)로 UNHCR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UNHCR은 또 이들 연행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위해 태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키티 맥킨지 UNHCR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왕 국장은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들의 향후 거취를 놓고 인도주의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콕포스트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재판 절차가 끝난 이후 탈북자 전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연합뉴스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들이 24일 불법입국죄로 법정에 회부돼 방콕 북부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한 법원 경비원이 부상을 입은 탈북자를 부축해주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각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AP=연합뉴스

中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희망"

중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사태로 인한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23일 "중국 정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김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위해서는 양국이 절차를 논의할 여

하고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만간 방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28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연방=연합뉴스

50% OFF SALE

이태리 가구

1. 2년만의 **대 세일**
2. 전역 리뉴얼 **새 단장** 오픈세일
3. **이태리 명작 Ossing 한국출판 판매기념**

1.28~정월가까이 3~18층 정월가까이 **50% 할인**

● 특가구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정기간입니다.
● 수요일까지를 제외한 기타요일에 일부의 경우 할인됩니다.

동구 장충로터리 www.ossing.com 226-7585~7

Well-being

가메스시

신중하 업무처리로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 도청이전본부장을 맡아 남악신도청 이전을 무리없이 마쳤다. 전남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 남악신도시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의 기반마련에 기여했다는 평. ▲광주(58) ▲지역계획과장 ▲도청이전사업본부장

동구 장충로터리